

미혼남녀의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의 유형 분석

- Lee의 사랑유형론과 Jung의 심리유형론을 중심으로 -

이 정 은* (상명대학교 가정교육전공 석사)

최 연 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사랑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늘 중요한 위치를 점해왔으나, 그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들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국내외 연구들이 간과해왔던 개인의 성격유형을 특정 짓는 심리적 경향에 따라 사랑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연구대상은 미혼남녀로서 서울시내 3개 대학과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1개의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들과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 MBTI와 사랑유형검사를 실시하여 그 중 부실 기재를 제외한 474명이 분석대상자가 되었다. 연구문제의 결과를 얻기 위한 자료처리는 SPSS/ PC+를 이용하였고, 사랑유형에 대해서는 요인 분석을 실시한 후, χ^2 검증을 함으로써 심리경향에 따라 사랑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기존의 사랑에 관한 Lee의 유형이 본 연구에서도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요인분석한 결과 Lee의 1차 유형인 세 가지 사랑 유형(에로스: 열정적인 사랑, 스토르게: 친구같은 사랑, 루두스: 유희적인 사랑)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인 미혼남녀의 사랑유형분포는 에로스(46.6%)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스토르게(40.3%), 그리고 루두스(13.1%)가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미혼남녀의 전체 16가지 성격유형 중 10% 이상의 분포를 나타내는 성격유형은 ISTJ(19.4%), ESTJ (13.1%), ISTP(12.4%)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리경향 분포는 각 척도에서 I, S, T, J가 절반이상의 분포를 이루고 있고, 선호쌍의 분포에서는 기질별로는 SJ와 SP가, 기능별로는 ST와 SF가 50% 이상의 분포를 이루었다.

넷째, 미혼남녀의 각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고-감정, 판단-인식, 그리고 기질, 기능에 따라 사랑의 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외향-내향, 감각-직관의 심리경향에 따라서는 사랑유형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국내에서 연구가 미비하였던 미혼남녀들의 사랑을 한국적 상황에서 유형화시켜 보고, 사랑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성격특성을 중심으로 사랑에 접근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인 이성교제와 배우자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